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남: 220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고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온정과 갈등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전체 30문항을 포함하는 대학생용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는 적절한 신뢰도를 지니고 있었고, 두 요인은 서로 부적 상관을 보여 형제자매관계의 양가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는 달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외향성과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으며 그 외에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여성의 형제자매관계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남성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남성들의 편집증과만 관련되어 있었으나 갈등은 남녀 모두에서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 전체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형제자매간의 갈등을 고저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갈등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보다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나타내었고, 특히 갈등이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나타내어 여성들의 형제자매관계는 그들의 정신건강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주요어: 형제자매관계, 온정, 갈등, 성격특성, 정신병리적 증상

형제자매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서 전생을 통하여 개인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다른 어떤 친족관계보다 더 평등하고 친구관계보다는 더 오랜 공유된 역사를 갖는 특징이 있다(Eriksen & Gerstel, 2000). 아동

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있게 형제자매관계에서의 개인차가 아동의 정신건강은 물론 사회적, 도덕적 및 인지적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의 자기존중감과 우울, 불안 및 문제행동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urman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 Buhrmester, 1985; McHale & Gamble, 1989; Stocker, 1993). 특히 Cicirelli(1995)는 형제자매관계가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기술, 언어기술, 갈등관리와 해결기술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을 유지하는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관계가 일생동안 계속되고 친구관계나 다른 대인관계들이 변화할 때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기 때문에 아동기 이후에도 개인이 경험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주로 연구하였고(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Stocker, Dunn, & Plomin, 1989), 단지 일부의 연구들만이 성인후기의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하였을 뿐(Dew, Llewellyn, & Balandin, 2004; Volkom, 2006) 청년기나 성인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형제자매관계는 매우 양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Fingerman, Hay, & Birditt, 2004). 그 증거로서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이나 애정같은 긍정적 차원과 갈등이나 경쟁같은 부정적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한다(장휘숙, 2008; Stocker & McHale, 1992). 실제로 형제자매들은 동일한 부모의 자녀들이므로 서로 유전자를 공유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므로 온정과 갈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보살피고, 상의하고, 돕고, 의논하고, 의지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우월해지기 위해 혹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갈등하고 경쟁할 수도 있는 양가적 관계를 형성한다. 성인기 형제자매들 역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고, 보살피지만, 자주 경쟁과 갈등을 경험한다. 일찍이 22세부터 93세까지의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Ross와 Milgram(1982)은 표본의 45%가 형

제자매간에 경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인기 동안에는 형제자매가 부담스럽고 싫으면, 스스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인기의 형제자매관계는 아동기만큼 갈등이나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Stocker, Lanthier와 Furman(1997)도 형제자매간의 경쟁이나 갈등의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아동기에 확인된 상관정보보다는 유의하게 낮아 이제 부모의 애정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들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갈등의 일차적 근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이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대학생이나 성인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들(Bedford, 1989; Cicirelli, 1982; Ross & Milgram, 1982)은 개방형 질문이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여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하였으나 Stocker 등(1997)과 Riggio(2000)는 심리측정적 그리고 실용적 장점을 갖는 척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기보고 도구로서 성인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Stocker 등(1997)이 제작한 성인 형제자매관계 질문지(Adult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ASRQ)는 친밀성과 애정, 지식, 수용, 유사성, 존중, 정서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 온정 차원과 우월과 경쟁, 적대감, 및 말다툼을 포함하는 갈등 차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경쟁과 아버지에 대한 경쟁을 포함하는 경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며, 전체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연구대상자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현재의 지각은 물론 형제자매들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을 함께 평정함으로써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ASRQ에서의 경쟁문항은 오로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이나 관심에 대한 경쟁으로 형제자매에 대

한 부모의 편애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Riggio(2000)가 제작한 전생애 형제자매관계 척도(Lifespan Sibling Relationship Scale: LSRS)는 6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각 하위척도는 8개의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4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질문지로서, 아동은 물론 성인들에게 실시될 수 있는 전생애 척도이다. 이 척도는 성인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정서와 인지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아동기에서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태도도 함께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Riggio는 형제자매간의 경쟁이나 갈등은 자기보고도구로써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가정하였으므로 LSRS는 갈등이나 경쟁을 직접적으로 평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ASRQ는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고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편애에 기인한 경쟁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부모와는 독립적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LSRS도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회고적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갈등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청년후기나 성인기에 이르면 Cicirelli(1991)의 주장대로 부모의 편애에 기인한 형제자매간의 경쟁은 크게 감소하지만, 형제자매간의 우월과 경쟁심, 적대감 및 말다툼은 여전히 계속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편애에 기인한 경쟁을 제외하고 온정과 갈등의 두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제작하려고 한다.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정신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Riggio(2000)는 그가 제작한 LSRS와 Eysenck 성격질문

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신경증(Neuroticism)과 정신증(Psychoticism)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아동기에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더 적은 긍정적인 느낌과 성인기에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더 부정적 신념을 나타내었으나 사교성과 외향성은 형제자매관계와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ig Five 성격특성과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Lanthier(2007)는 높은 호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온정적이고 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Stock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연구대상자들의 정신건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고 그것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Big Five 성격검사와 표준화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여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더욱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들의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지각한다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Connidis, 2001; Connidis & Campbell, 1995)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경쟁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으므로(Stocker 등, 1997)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성차는 물론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과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는 것

이 연구의 주목적이므로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들과 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남녀 대학생 375명(남: 220명, 여: 155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대학생 21.96세(SD=2.586) 그리고 여자 대학생 20.05세(SD=1.830)였으며 설문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고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약 10일간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형제자매관계 질문지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온정 차원 24문항 그리고 갈등 차원 16문항을 포함하는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Stocker 등(1997)이 제작한 ASRQ와 유사하게 온정 차원은 애정, 친밀성, 유사성, 신뢰, 지원, 이해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갈등 차원은 말다툼, 적대감, 우월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쟁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이므로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간의 경쟁문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질문지는 오로지 특정한 한 형제자매를 떠올리면서 연구대상자 본인이 지각하는 형제자매관계의 질을 평정하게 함으로써 ASRQ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지니도록 구성하였다. 이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들이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갈등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매우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온정 요인 18문항 그리고 갈등 요인 12문항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제작될 수 있었고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온정 요인 .935 그리고 갈등 요인 .850이었다.

성격척도

John, Donahue와 Kentle(1991)이 개발한 Big Five 성격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한다. 요인분석결과 호감성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전체 43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문항은 외향성 차원(문항 예: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8문항, 호감성 차원(문항 예: 나는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주 다른 사람을 돕는다) 8문항, 성실성 차원(문항 예: 나는 일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9문항, 정서적 불안정성 차원(문항 예: 나는 자주 우울하다) 8문항,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차원(문항 예: 나는 독창적이어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1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각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34, 호감성 .707, 성실성 .811, 정서적 불안정성 .844,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778 이었다.

정신병리적 증상 척도

김광일과 김재환(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사용되었다. 원래 이 검사는 Derogatis 등(1972)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다차원증상 목록(Symptom Checklist-90-Revision)으로 9개 증상차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신체화

증상(12문항), 강박증증상(10문항), 대인예민성증상(9문항), 우울증상(13문항), 불안증상(10문항), 적대감증상(6문항), 공포불안증상(7문항), 편집증증상(6문항), 정신증증상(10문항)의 9가지 증상차원을 포함하며 그 외에 채점되지 않는 부가적 문항 7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심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매우 심한 심리적 증상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는 개인의 증상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Cronbach α 로 측정된 9개의 증상차원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89에서 .906까지 범위하였다.

결 과

1.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의 요인구조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축요인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 수는 온정과 갈등의 2개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요인들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온정과 갈등요인 모두에서 높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들과 두 가지 요인 각각에서 낮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최종적으로 3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온정과 갈등 요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변량의 55.139%를 설명하였고 온정요인은 18개 문항을 그리고 갈등요인은 12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온정요인 .935, 갈등요인 .850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으며, 두 요인의 상관은 $r = -.166(p < .001)$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어 온정과 갈등은 반대의 차원임을 보여주었다.

2. 성별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정과 갈등 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정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등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_{(271)}=4.779, p < .001$). 즉 남녀 모두 형제자매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온정을 경험하지만 형제자매간의 갈등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 즉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 요인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남녀 모두에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요인은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남: $r=.254, p < .001$, 여: $r=.338, p < .001$)과 호감성(남: $r=.237, p < .001$, 여: $r=.191, p < .05$) 및 성실성(남: $r=.176, p < .01$, 여: $r=.23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온정과 경험에 대

표 1.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은정	갈등
2 나는 나의 중요한 일을 형제자매에게 이야기한다.	.792	-.172
8 나는 형제자매를 믿고 의지한다.	.780	-.187
14 형제자매와 함께 있으면 나는 마음이 편하다.	.778	-.179
3 나는 형제자매와 매우 가깝다.	.767	-.163
19 나는 형제자매에게 내 비밀을 털어 놓는다.	.755	-.110
30 나는 내 감정이나 개인적 문제에 대해 형제자매와 상의한다.	.735	-.141
6 나는 형제자매를 잘 이해한다.	.732	-.108
1 나는 형제자매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703	-.166
11 나는 형제자매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90	-.235
25 나는 형제자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격려해준다.	.690	-.123
39 나는 어떤 일을 형제자매와 함께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679	-.129
26 나는 형제자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634	.024
29 나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때도 형제자매를 돕는다.	.608	-.190
32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는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572	-.170
28 나는 형제자매의 친구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59	-.092
17 나는 형제자매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543	.006
13 나는 내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보살핀다.	.486	.004
18 나는 형제자매와 유사한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	.395	.033
27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경쟁한다.	.037	.717
34 나는 형제자매를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034	.697
15 나는 어떤 일에서나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싫어한다.	-.099	.632
35 나는 형제자매에게 자주 화를 낸다.	-.271	.611
23 나는 형제자매를 자주 비난한다.	-.373	.579
10 나는 형제자매에게 질투를 느낀다.	.036	.578
22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말다툼을 한다.	-.323	.571
40 잘난 내 형제자매 때문에 나는 자주 우울하다.	-.071	.544
12 나는 형제자매보다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077	.506
36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는 형제자매에게 하게 한다.	-.104	.478
33 나는 형제자매를 욕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한다.	-.242	.454
20 나는 화가 나면 형제자매를 몰아세운다.	-.146	.443
초기 고유근(eigenvalue)	9.236	4.449
초기 설명변량 전체 55.139%	30.788	14.830
Cronbach α	.935	.850
은정-갈등 상호상관	-.166***	

표 2. 성별에 따른 온정과 갈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성별	<i>N</i>	평균(<i>SD</i>)	<i>t</i> 값 (<i>df</i> =271)
온정	남성	220	3.44(0.76)	1.109
	여성	155	3.53(0.74)	
갈등	남성	220	1.95(0.61)	4.779***
	여성	155	2.27(0.67)	

p*<.05, *p*<.01, ****p*<.001 이하 동일함

표 3.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상관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관계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남	온정	.254 (***)	.237 (***)	.176 (**)	-.130	.022
	갈등	.049	-.427 (***)	-.181 (**)	.255 (***)	.127
여	온정	.338 (***)	.191 (*)	.233 (**)	-.151	.215 (**)
	갈등	-.149	-.314 (***)	-.259 (**)	.335 (***)	-.082

한 개방성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상관($r=.21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수록 남녀 모두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여성들은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은 남녀 모두에서 5가지 성격특성 중 호감성(남: $r=-.427$, $p<.001$, 여: $r=-.314$, $p<.001$) 및 성실성(남: $r=-.181$, $p<.01$, 여: $r=-.259$, $p<.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남: $r=.255$, $p<.001$, 여: $r=.335$, $p<.0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호감성과 성실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표 3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요인 성격특

성이 형제자매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요인 성격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형제자매 관계의 온정과 갈등 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 요인에서 성차가 확인되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식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고(남: $F_{(5, 214)}=6.080$, $p<.001$, 여: $F_{(5, 149)}=6.158$, $p<.001$), 표 4와 같이 남성들의 5요인 성격특성은 온정 요인에 대해 전체 변량의 12.4%를 설명하였으며 여성들에서는 1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에서는 외향성($\beta=.264$, $p<.001$)과 호감성($\beta=.228$, $p<.001$)이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외향성(β

표 4. 5요인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Tolerance	VIF	R ²
남	외향성	.277	.075	.264	3.673***	.792	1.263	.124
	호감성	.382	.119	.228	3.217***	.812	1.231	
	성실성	.097	.100	.072	.964	.736	1.358	
	정서적불안정성	.061	.084	.056	.721	.685	1.460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3	.081	-.095	-1.388	.868	1.152	
여	외향성	.370	.102	.301	3.621***	.805	1.243	.171
	호감성	.172	.114	.128	1.507	.769	1.301	
	성실성	.221	.114	.170	1.944*	.725	1.380	
	정서적불안정성	.136	.106	.124	1.283	.592	1.689	
	경험에 대한 개방성	.135	.094	.112	1.437	.916	1.092	

표 5. 5요인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요인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Tolerance	VIF	R ²
남	외향성	.062	.056	.074	1.093	.792	1.263	.229
	호감성	-.504	.089	-.378	-5.677***	.812	1.231	
	성실성	-.085	.075	-.079	-1.129	.736	1.358	
	정서적불안정성	.096	.063	.110	1.523	.685	1.460	
	경험에 대한 개방성	.158	.061	.167	2.591**	.868	1.152	
여	외향성	-.025	.093	-.022	-.266	.805	1.243	.151
	호감성	-.228	.104	-.189	-2.192*	.769	1.301	
	성실성	-.104	.104	-.089	-1.005	.725	1.380	
	정서적불안정성	.191	.097	.193	1.969*	.592	1.689	
	경험에 대한 개방성	-.017	.086	-.015	-.193	.916	1.092	

=.301, $p<.001$)과 성실성($\beta=.170$, $p<.05$)이 온정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식도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남: $F_{(5, 214)}=12.694$, $p<.001$, 여: $F_{(5, 149)}=5.320$,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들의 다섯 가지 성격특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차원에 대해 전체 변량의 22.9%를 설명하였고 여

성들의 경우에는 1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에서는 호감성($\beta=.264$,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beta=.228$, $p<.001$)이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호감성($\beta=.301$, $p<.001$)과 정서적 불안정성($\beta=.170$, $p<.05$)이 갈등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예측하는 성격특성들이었다. 즉 낮은 호감성과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 낮은 호감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외향성과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으로, 높은 외

표 6.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상관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관계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남	온정	-.028	-.118	-.129	-.109	-.068	-.038	-.041	-.202 (**)	-.087
	갈등	.198 (**)	.179 (**)	.232 (**)	.210 (**)	.200 (**)	.262 (***)	.158 (*)	.248 (***)	.200 (**)
여	온정	.114	.001	.002	-.028	.026	-.004	-.003	.002	.014
	갈등	.263 (**)	.345 (***)	.418 (***)	.310 (***)	.375 (***)	.362 (***)	.276 (**)	.355 (***)	.328 (***)

향성은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그리고 낮은 호감성은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예언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다. 그 외에 높은 호감성을 갖는 남성과 높은 성실성을 갖는 여성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고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는 남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 여성들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수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4.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 요인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로 측정된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 즉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사이의 상관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형제자매 관계의 온정차원은 남성들에게서만 편집증($r=-.202,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온정적이지 못한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남성들은 편집증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형제자매 관계의 갈등차원은 남녀 모두에서 9개 정신병리적

증상, 즉 신체화(남: $r=.198, p<.01$, 여: $r=.263, p<.01$), 강박증(남: $r=.179, p<.01$, 여: $r=.345, p<.001$), 대인예민성(남: $r=.232, p<.01$, 여: $r=.418, p<.001$), 우울(남: $r=.210, p<.01$, 여: $r=.310, p<.001$), 불안(남: $r=.200, p<.01$, 여: $r=.375, p<.001$), 적대감(남: $r=.262, p<.001$, 여: $r=.362, p<.001$), 공포불안(남: $r=.158, p<.05$, 여: $r=.276, p<.01$), 편집증(남: $r=.248, p<.001$, 여: $r=.355, p<.001$) 및 정신증(남: $r=.200, p<.01$, 여: $r=.3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남녀 모두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 요인에 따른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의 온정과 갈등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고, 온정과 갈등에서 0보다 큰 점수를 얻은 집단을 온정 고집단과 갈등 고집단으로 구분하고 0보다 작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온정 저집단과 갈등 저집단으로 분류하여 온정과 갈등 각각의 고저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표 7. 남녀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 정도에 따른 9개 정신병리적 특성의 총합 점수와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관계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은정	고 (N=121)	17.76 (6.50)	19.62 (6.60)	16.59 (5.83)	23.07 (9.21)	15.51 (6.18)	9.19 (4.16)	8.95 (3.48)	9.33 (3.60)	14.32 (5.60)
	저 (N=99)	17.97 (6.73)	20.58 (6.44)	17.66 (5.43)	24.66 (8.99)	15.68 (6.04)	9.51 (3.36)	8.93 (2.61)	10.20 (3.79)	15.00 (5.03)
	<i>F</i> _(1,218)	.057	1.163	1.967	1.664	.045	.384	.002	3.057	.883
남	고 (N=83)	18.95 (6.47)	21.09 (6.41)	18.05 (5.88)	25.57 (9.05)	16.74 (6.06)	10.23 (4.06)	9.19 (3.09)	10.22 (3.75)	15.47 (5.05)
	저 (N=137)	17.19 (6.60)	19.43 (6.55)	16.47 (5.47)	22.70 (9.03)	14.89 (6.04)	8.80 (3.57)	8.79 (3.13)	9.42 (3.66)	14.12 (5.48)
	<i>F</i> _(1,218)	3.719	3.374	4.079*	5.223*	4.853*	7.437**	.846	2.424	3.360
은정	고 (N=79)	22.25 (8.87)	21.49 (6.51)	17.72 (6.19)	26.43 (9.85)	17.94 (7.34)	10.13 (4.05)	9.49 (3.99)	9.69 (3.80)	15.76 (5.75)
	저 (N=76)	19.81 (7.19)	20.85 (6.22)	17.77 (5.82)	26.24 (9.25)	16.99 (5.67)	9.78 (3.53)	9.30 (3.90)	9.78 (3.69)	15.34 (5.99)
	<i>F</i> _(1,153)	3.543	.390	.003	.016	.821	.329	.095	.019	.204
여	고 (N=90)	22.26 (8.49)	22.74 (6.22)	19.71 (5.85)	28.50 (9.38)	18.96 (6.73)	11.06 (3.94)	9.84 (4.19)	10.75 (3.95)	16.89 (6.03)
	저 (N=65)	19.38 (7.42)	19.02 (5.94)	15.03 (5.08)	23.34 (8.98)	15.42 (5.78)	8.43 (2.99)	8.78 (3.48)	8.32 (2.91)	13.70 (5.08)
	<i>F</i> _(1,153)	4.802*	14.056***	26.860***	11.847***	11.762***	20.332***	2.802	17.694***	12.021***
	<i>d</i> _(1,153)	MSE=64.924	MSE=37.240	MSE=30.728	MSE=84.896	MSE=40.365	MSE=12.789	MSE=15.307	MSE=12.593	MSE=31.949

남녀의 은정과 갈등의 고저집단에 따른 9개 정신 병리적 증상의 종합점수와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남녀 모두 형제자매관계의 은정 고저 집단에 따라서는 9개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고저 집단에 따라서는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성에서는 대인예민성 ($F_{(1, 218)}=4.079, p<.05$)과 우울($F_{(1, 218)}=5.223, p<.05$), 불안($F_{(1, 218)}=4.853, p<.05$) 및 적대감($F_{(1, 218)}=7.437,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성에서는 공포불안을 제외한 8개의 증상 즉 신체화($F_{(1, 153)}=4.802, p<.05$), 강박증($F_{(1, 153)}=14.056, p<.001$), 대인예민성($F_{(1, 153)}=26.860, p<.001$), 우울($F_{(1, 153)}=11.847, p<.001$), 불안($F_{(1, 153)}=11.762,$

$p<.001$), 적대감($F_{(1, 153)}=20.332, p<.001$), 편집증($F_{(1, 153)}=17.694, p<.001$) 및 정신증($F_{(1, 153)}=12.02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 및 2와 같다.

그림 1과 2에 의하면,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 보다 정신병리적 증상 중 대인예민성과 우울, 불안 및 적대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보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및 정신증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형제자매들간의 갈등은 정신병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고, 특히 여성들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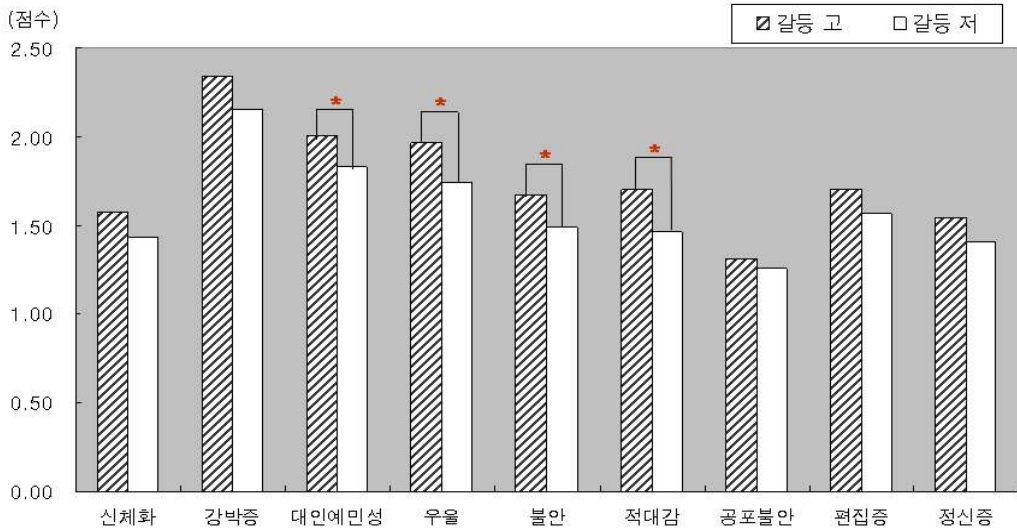


그림 1. 남성들의 형제자매관계 중 갈등 정도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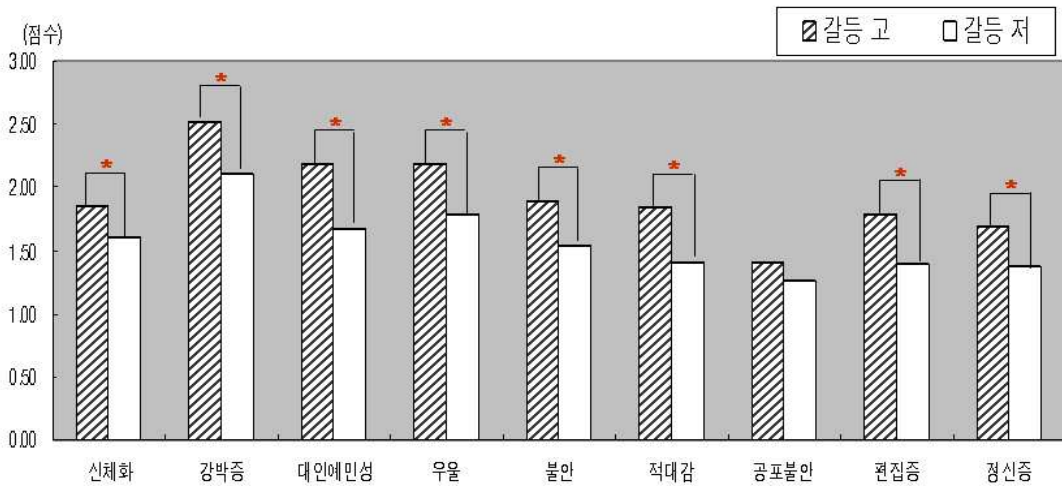


그림 2. 여성들의 형제자매관계 중 갈등 정도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의 차이

정신병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남: 220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고,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작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와, Big Five 성격 검사 및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사용되었다. 온정과 갈등의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는 두 가지 요인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이나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문항(온정: 18문항, 갈등: 12문항)이 선정되었다. 온정요인과 갈등요인 모두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두 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형제자매관계의 양가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온정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갈등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수록 남녀 모두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고, 여성들은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지니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호감성과 성실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고, 낮은 호감성과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는 남성 및 낮은 호감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었다. 결국 외향성과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고, 그 외에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여성의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남성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들이었다.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온

정은 남성들의 편집증만을 제외하고 정신병리적 증상들과 관계가 없었으나 갈등은 남녀 모두에서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온정과 갈등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고저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온정 고저집단에 따라서는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등 고저집단간에는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형제자매간에 갈등이 많은 집단이 갈등이 적은 집단보다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였으며, 특히 갈등이 많은 여성들은 갈등이 많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나타내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이 연구에서 제작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요인 모두 좋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었고,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여 형제자매관계가 양가적이라는 선행연구들(장휘숙, 2008; Fingerhann, Hay, & Berditt, 2004; Stocker & McHale, 1992)과도 일치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ASRQ(Stocker 등, 1997)나 LSRS(Riggio, 2000)와 비교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된 질문지는 더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하기 용이하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Stocker 등(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들의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지각한다는 Connidis(2001)나 Spitze와 Trent(2006)의 연구와는 다르게 온정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만약 척도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학생용으로 제작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다른 연령의 성인들에게도 실시될 수 있다면, 온정에서 나타난 성차의 부재가 척도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연령에 기인한 문제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는 자매, 형제, 혹은 남매 등의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구성에 기초한 온정과 갈등의 정도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Riggio(2000)같은 연구자는 자기보고도구로써 형제자매간의 경쟁과 갈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가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형제자매관계의 갈등과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들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됨으로써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역시 온정 요인과 같이 질문지로 측정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남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차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나 외향성과 형제자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Riggio(2000)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아마도 이와 같은 차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Big Five 성격검사와 Riggio가 사용한 Eysenck 성격질문지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두 가지 검사를 함께 사용하여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향성 다음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 영향을 주는 성격요인은 호감성과 성실성이었으며, 특히 호감성은 남성의 온정과 남녀 모두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특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감성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성격차원이라고 주장한 Graziano와 Eisenberg(1997)는 물론 호감성이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일관성있는 지표라는 Lanthier(2007)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였다.

문제는 Lanthier(2007)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들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나 갈등 변량의 26-39%를 설명하였으나 이 연구에서의 설명량은 12.4-22.9%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한국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가 성격특성 외에도, 출생 순서나, 성별, 자녀의 수, 연령 차이같은 가족 구성변인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이나 부모의 관리·감독같은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Stocker 등(1997)은 가족내의 자녀의 수는 형제자매간의 온정과서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경쟁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후속연구는 형제자매관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에서의 차이도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리적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Stocker 등(1997)이나 Riggio(200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잘 것 없는 심리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를 더 갈등적으로 지각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 형제자매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므로 형제자매간의 갈등과 정신병리적 증상과의 관련성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형제자매간의 갈등을 고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남성들은 고저 집단간에 단지 4개의 정신병리적 증상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들은 전체 9개의 증상 중 8개 증상에서 차이를 보여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특히 여성들의 정신병리적 증상을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관계지향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에도 더 적은 갈

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간에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그것은 다시 정신병리적 증상과 연결됨으로써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은 특히 여성들의 정신건강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성인의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생용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고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아동기 이후의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재환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장휘숙 (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69-87.
- Bedford, V. H. (1989). Ambivalence in adult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10, 211-224.
- Cicirelli, V. G. (1982). Sibling influence throughout the lifespan. In M. E. Lamb &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pp. 267-284). Hillsdale, NJ: Erlbaum.
- Cicirelli, V. G. (1991). What is meant by a connection between sibling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6, 291-310.
- Cicirelli, V. G. (1995).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New York: Plenum Press.
- Connidis, I. A. (2001). *Family ties and aging*. Thousand Oaks, CA: Sage.
- Connidis, I. A., & Campbell, L. D. (1995). Closeness, confiding, and contact among siblings in middle and late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6, 722-745.
- Derogatis, L. R., Lipman, R. S., Covi, L., et al. (1972). Factorial invariance of symptom dimensions in anxious and depressive neuros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7, 659-665.
- Dew, A., Llewellyn, G., & Balandin, S. (2004). Post-parental care: A new generation of sibling-carers.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9, 176-179.
- Eriksen, S., & Gerstel, N. (2000). *Adult siblings as family resources: Factors that shape contact and ca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Fingerman, K. L., Hay, E. L., & Berndt, K. S. (2004). The best of ties, the worst of ties: Close, problematic, and ambivalent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 792-808.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Graziano, W. G., & Eisenberg, N. H. (1997).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795-825.
- John, O. P., Donahue, E. M., & Kentle, R. L. (1991). *The Big Five Inventory-Versions 4a and 5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earch.
- Lanthier, R. P. (2007). Personality traits and sibling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s'. *Psychological Report, 100*, 672-674.
- McHale, S., & Gamble, W. (1989). Sibling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disabled and non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1-429.
- Riggio, H. R. (2000). Measuring attitudes toward adult sibling relationships: The lifespan sibling relationship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6), 707-728.
- Ross, H. G., & Milgram, J. I. (1982). Important variables in adult sibling relationships: A qualitative study. In M. E. Lamb & B. St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pp. 225-249). Hillsdale, NJ: Erlbaum.
- Sptize, G., & Trent, K. (2006). Gender differences in adult sibling relations in two-chil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977-992.
- Steelman, L. C., Powell, B., Werum, R., & Carter, S. (2002).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sibling configuration: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243-269.
- Stocker, C. (1993). Siblings'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mother-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85-499.
- Stocker, C., Dunn, J., & Plomin, R. (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Stocker, C. M., Lanthier, R. P., & Furman, W. (1997).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2), 210-221.
- Stocker, C., & McHale, S. (1992). The nature and family correlates of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180-195.
- Volkom, M. V. (2006).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and older adulthood: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rriage and Family Review, 40*(2/3), 151-170.

1차 원고 접수: 2009. 07. 01.

수정 원고 접수: 2009. 08. 11.

최종 게재 결정: 2009. 08. 12.

Sibling Relations,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sibling relations questionnaire for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sibling relations,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with college students. The questionnaire with 30 items developed in this study involved 2 factors, warmth and conflict and had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Results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 were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especially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could predict sibling relations of men and women and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were able to predict women's and openness to experience to men's sibling relations. Also warmth was only related with paranoia of men, but conflict was associated with 9 psychopathological symptoms of men and women. Interestingly women with more conflict in sibling relations had significantly more psychopathological symptoms than men with more conflict.

Keywords: sibling relations, personality traits, psychopathological symptoms